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 www.ichicken.or.kr

HOT
ISSUE

농림축산식품부로 정부조직법 개정

식약처 안정적인 측면 강조, 닭고기 수입 부추길 우려 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6일 만인 지난 3월 22일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7부 3처 17청으로 최종 마무리되었다.

우리 분야에서는 농림수산물부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 명칭이 변경되고 '수산물'이 분리되면서 해양수산부가 별도의 조직으로 신설되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 승격되면서 식품진흥업무는 농식품부가, 위생검사업무는 식약처가 관장하면서 두 부처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여전히 남게 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출범

정부조직개편안이 늦어졌던 이유 중의 하나는 대통령인수위에서 농림수산물부를 '농림축산부'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식품'업무를 식약처로 이관하려는 의지가 다분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인수위에서 '식품'을 빼고 '농림축산부'로 발표하자 축산업 관련인들은 농업 중 42%를 차지하는 축산업의 중요성을 인정받았다는데 환영의 뜻을 비쳤지만 승격된 식약처로 식품업무가 넘어가 '식품진흥' 업무가 위축되지 않을까 큰 우려를 자아냈다.

농민관련 단체들은 즉시 성명서를 발표

하여 '농림축산식품부'로 개칭하고 식품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하면서 강하게 반발하였다. 5년전 식품산업을 지원 육성할 전담부처가 어렵게 만들어져 날로 증대하는 식품산업의 사회적 중요성이 제대로 인식되고 지원 육성체제가 갖추어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식품'을 부처 명칭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명칭변경을 위해 양계협회를 비롯한 생산자 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주효했지만 국회 홍문표 의원(새누리당, 홍성·예산)의 역할이 가장 돋보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3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늦게나마 협상이 타결되어 다행"이라고 평가한 뒤 "그 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온 '농림축산부' 명칭이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되어 식품안전진흥업무를 통한 식품정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식품진흥은 농식품부, 식품안전은 식약처

축산인들은 축산과 식품업무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명칭에 대해 '식품진흥' 업무를 현 정부가 인정하든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도

'식품진흥'과 '식품안전' 업무 이원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승격된 식약처에서 '식품안전' 업무를 강화하면서 식품의 지원 육성보다 규제와 단속 위주로 정책이 추진되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애당계 염원하던 '농림축산식품부' 명칭변경은 축산단체 및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었다. 이로써 식품진흥업무를 식약처에 넘기지 않고 기존대로 유지하게 되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 중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질병·품질관리 등을 위탁하게 되면서 당분간 우리가 우려했던 문제는 사라지고 기존과 큰 변화없이 업무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단 농축수산물에 대한 검사는 식약처가 맡게 되고 검역은 기존대로 농식품부가 담당하게 된다. 즉 '세균', '바이러스' 등 식중독 유발인자에 대한 검사는 식약처가 맡게 되고 수입농축수산물에 대한 방역 등 위생문제는 농식품부가 맡게 되면서 두 부처 간에 여전히 갈등이 남아 있는 형국이다.

식약처 규제단속 강화시 육계업 어려움 예상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에 대해 강화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식품진흥

과 안전업무를 같이 다루고 있다. 진흥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식약처가 안전적인 측면을 강화할 경우 단속과 규제중심으로 가면 생산분야에 위축을 가져와 경쟁력 약화로 수입산물의 국내시장진출의 좋은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우지파동, 고름우유, 광우병, AI 인체감염 등 그 동안 터뜨리고 보자는 허위발표에 축산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던 사례를 잊을 수가 없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 정작 책임을 회피하여 생산자들과 소비자들만 피해를 가져오는 꼴이 되었다. 육계산업의 경우에도 닭고기에 대한 집중적인 검사를 통해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부각시킨다면 국내산 닭고기의 소비에 타격을 주고 오히려 값싼 외국닭고기로 대체, 결국 농가들의 설 자리를 빼앗는 악순환이 이루어질 소지가 다분하다.

국민 전체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식품부가 출범하였다. 그 동안의 업무공백을 수습하고 식약처와의 협조적인 공조체제를 통해 육계산업 등 축산업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정책을 이끌어갈 기대해 본다.

대한양계협회 정책기획부장 김동진

닭고기 자조금 거출기준 및 납부절차

닭고기 자조금은 2009년 6월 1일부터 '축산자조금관리법'에 의해 운영되며, 축산인들 모두 참여해야 합니다. 닭고기 자조금은 양계산업 발전을 위해 쓰여져 농가들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가 어려움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닭고기 자조금 납부 현황은 소식지나 닭고기 자조금 홈페이지(www.ichicken.or.kr) 자조금 납부현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가출하
육계, 삼계, 토종닭, 육용종계 도계장으로 출하

거출금 징수 위탁
수납기관 :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작업장 (수납기관은 농가의 자조금 납부 의사를 거부하거나 중단할 수 없다. 법 제 19조제2항)

거출금 징수
수납기관 : (도계되는 전수에 대하여 도계장에 의무 징수)

농가직접납부
도계수를 기준으로 농가가 직접 자조금 납부, 자조금 송금 후 관리위원회로 연락 필수

거출금 송금
수납기관 또는 농가가 직접 관리위원회에 납부 (수납 익월 20일 까지)

고지서 발송
관리위원회에서 수납기관 (도계장)

[거출시작일] 2009년 6월 1일 도계물량부터
[수납기관] 전국 도계장 대표자
[거출금액] 육계 5원, 삼계 3원, 토종닭 10원, 육용종계 30원(수당)
[농가직접납부 계좌번호] 농협 301-0017-6070-01 (예금주 : 닭고기 자조금 관리위원회)



진정한 상생의 길로 가기를 바란다

축산계열화법, 농가와 계열사 상호 신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농가협의회, 실질적이고 자율적인 농가의 대변자 역할하기 바래

김 의 겸 / 산내들농축 대표 /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



축산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빠른 정착과 앞으로의 과제를 농가와 계열사 간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어려운 산고 끝에 2월 23일부터 축산계열화사업법(이하 '법'이라 칭함)이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계열화(Integration) 사업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20여년 만에 축산농가들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사육비는 오히려 감소하였고 원자재(병아리, 사료 등)의 품질 문제로 농가와 계열사 간에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되어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또한 계약서 변경도 일방적으로 조정(인하)하여 농가에 통보만 하고 계약서에 날인을 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사육비 또한 계열사가 어려우면 지급 기한이 긴 어음을 발행해 지급하다 부도가 발생되어도 손해는 고스란히 농가의 몫이었다. 항상 하는 말, 상생을 하여야 한다고 외치면서도 실천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갑'의 우월성을 가지고 농가들의 원성을 산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축산계열화법'이 시행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농가협의회 설립해야

아직 시행 초기라서 '법'과 시행령, 시행 규칙에 명시된 여러 가지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을 집행하기에는 멀기만 한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 당장 분쟁이 발생된다 하여도 농가협의회도 설립되어 있지 않은 계열사가 많고 시·도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도 안 되어 있어 '법'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될 과제가 많다. 벌써 일부 계열사에서 농가협의회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에 없는 사항과 계약서 변경이 있었다면 당장 '법'에 어긋난 사항 아닌가? 농가 협의회 설립도 민주적이며 자율적으로 농가들이 직접 설립하여 농가의 대변자가 되어야 하나, 일부 회사는 허수아비 농가 협의회가 있는 것도 현실이다. 아직 농가협의회가 설립되지 않은 계열사도 농가가 중심이 되어 구성하여야 하는데 계열사 눈치를 보고 누가 선뜻 나서지 않고 있으며, 먼저 나서는 농가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법' 제14조 ④항에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가 농가협의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하거나 불이익 등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 되어 있어 과거와 같이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농가들도 모든 것을 이 '법'의 잣대로만 하지 말고 먼저 상호 협의하고 조정을 한 다음 최후의 수단으로 '법'을 적용하여야만 하고, 계열사 또한 '법'이 제정된 만큼 제정되기 전에 하던 관행을 버리고, 좀 더 진지한 자세로 약자인 농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헤아려 준다면 해결 안 될 것이 없다고 생각된다.

양보하는 자세로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시켜야

'법'에 추가될 것이 있다면 계열사 부도가 발생되면 농가들의 사육경비를 어떻게 받느냐 하는 방법은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농가들의 입장은 인건비 차원에서 채무확보 순위보다 우선

적으로 지급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법'에 반드시 제정되기를 원하고 있다.

계약서 내용 중 사육자재(사료량, 연료비, 약품비, 깔짚비 기타 등등)의 지급 기준설정도 일방적으로 정하였던 것을 상호 협의 하에 검토하고 수정되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제7조 ①항에 대한 "사육자재의 품질(병아리, 사료 등)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와 "출하하는 가축의 품질에 대한 기준 및 사육시설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농가와 계열사 간에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하여 제정된 '육계계열화 사육계약 표준약관' 시행 문제도 농가와 계열사 간의 참여하게 대립할 수 있다. 농가는 시행을 원하고, 계열사는 의무 사항이 아니므로 신중히 검토하고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잘못하면 유명무실한 표준약관이 될 수도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복잡한 분쟁조정 과정도 보완이 필요하고, 이상 여러 가지를 지적하였지만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룰 수는 없다. 농가와 계열사는 '법'을 시행하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빠진 것은 추가로 제정하여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률' 시행을 높이기 위해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농가의 '법률' 이해와 이용도를 제고시켜야 한다.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농가와 계열사가 양보하는 자세로 '법'을 지켜나간다면, 빠른 시일 안에 정착하여 축산업(육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와 계열사 간에 진정한 상생의 길을 열어갈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축산관련 정부부처 인사이동

지난 3월 11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임명에 이어, 3월 13일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제1차관, 3월 15일 이양호 농촌진흥청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됐다. 하지만 식품안전관리가 식약처로 이관되어 식품산업의 위축이 우려되기도 한다.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정승 처장은 농림수산물부 기획예산담당관을 거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위원장, 농림수산물부 제2차관 등을 지내며 농업분야 요직을 담당했다. 정승 처장은 박근혜 정부의 불량식품 근절의 책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 전남(55) ▲ 전남대 경제학 ▲ 행정고시 23회 ▲ 병무청 사무관 ▲ 행정쇄신위원회 국무총리행정조정실 과장 ▲ 농림수산물부 농촌정책국장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위원장 ▲ 농림수산물부 제2차관



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제1차관
여인홍 차관은 국립식물검역소 부산지소 검역과를 거쳐, 농촌진흥청 유통정책관, 농림수산물부 식품산업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여 차관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유통구조 개혁에 최적의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 부산(56) ▲ 동래고, 서울대 농학과 ▲ 기술고시 19회 ▲ 국립식물검역소 방제과장, 농산경영과장, 식량정책팀장 ▲ 국립식물검역원 원장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유통정책관 ▲ 농림수산물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이양호
농촌진흥청장
이양호 청장은 농림수산물부 통상협력과를 시작으로, 주OECD대표부 농무관, 농림수산물부 농업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이 청장은 2011년 농협의 신용과 경제 분야를 분리시킨 농협법 개정을 마무리한 바 있다.

▲ 경북(54) ▲ 영남대 행정학과, 태국 아시아과학기술원 석사 ▲ 행정고시 26회 ▲ 농림수산물부 통상협력과, 무역진흥과장 ▲ 주OECD대표부 농무관 ▲ 농림수산물부 농업정책국장, 기획조정실장

HOT ISSUE

0 0 2

농업용 면세유, 양계농가 경영에 턱없이 부족해

계사별 · 계절적 · 지역적 특성에 따른 면세유 정책 절실



농·어민의 비용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농업용 면세유가 실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양에 못 미치면서 부족을 호소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농업용 면세유는 정부에서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윤활유, LPG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 주는 석유이다. 그 중 경유는 열효율은 좋으나 환기 시설이 완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대화

시설을 갖춘 무창 계사에서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대부분의 일반농가에서는 재래식 계사를 갖추고 있어 연소가 잘 돼 냄새날 걱정이 없는 등유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계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래식 계사에 필요한 등유보다 경유의 면세유율이 높아 농가들의 면세유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경유의 일반시세가 1,800원이면 면세유가 1,150원이고, 등유는 일반시세 1,300원이면 면세유는 1,200원 정도이다. 결국 현대식 계사를 갖춰 경유 사용이 가능한 계열사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리고, 대다수 농가의 면세 혜택은 비교적 적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일부 농가에서는 지역적인 요인에 따른 면세유 부족도 호소한다. 양평지역의 경

우 오히려 철원보다도 온도가 낮으나 시내에서 측정한 온도를 적용하다 보니 외곽지역에 위치한 농가들의 실제 온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적인 온도편차에도 불구하고 닭마리 수나 농업기계보유현황 등에 관해서만 조사해 면세유폭을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각 농가별로 필요한 양이 보급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또한 외부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재래식 계사를 갖춘 일반 농가에서는 겨울철 유난히 춥거나 봄철에 바람이 많이 불면 더 많은 등유가 필요하게 되지만, 면세유는 일정량만 보급되기 때문에 계사 난방용 등유에 대한 부족분이 생기게 된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도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 해 1조 원에 달하는 면세유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준에 따른

정확한 보급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년 말 각 농가에서 작성한 조건표에 따라 전산 입력을 통해 면세유를 전국 만여 개의 주유소에 배정해서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각 농가에서는 계절적인 요인이나 지역적인 편차에 따라 부족분이 생기므로, 이에 대해서는 유보량을 추가 공급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정부정책에 따라 공정하게 면세유를 공급해야 하는 농협중앙회의 입장과 지역별로 혹은 계사의 특성별로 면세유 필요량이 다른 양계농가의 입장을 반영해, 농협중앙회와 농가 간에 합의를 찾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특히 면세유 중 65%가 난방용(버섯이나 양계)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양계농가의 현실을 반영한 면세유 정책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축산업 허가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교육이수를 위한 교육기한 및 시간 등 꼼꼼히 점검해야

2016년까지 축산업 허가제가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농가들의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개정에 따라 지난 2월 23일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사육시설 면적이 2,500㎡ 초과하는 농가가 허가제 대상이 되며, 1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여 실질적으로는 2014년 2월 22일까지 법규상 준수해야 할 축종별, 사육규모 적정 시설 기준을 보완하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제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만큼 아직 허가제 대상이 아닌 농가라도 축산업 허가 요건 중 교육 이수 의무가 있으며, 올해부터는 축산관련 차량 종사자에 대한 교육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꼼꼼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축산업 허가대상은 종축업, 부화업, 정

액 등 처리업을 하려는 자와 일정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업자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2013년 허가대상은 2천 500㎡ 초과하여 사육하려는 농가이며,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허가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우선 2014년까지는 전업농 수준, 2015년 준전업농 수준, 2016년 사육면적 50㎡ 이상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허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는 자(예: 사육면적 300㎡ 이상~1200㎡ 미만 농가)는 변함없이 축산업 등록이 유지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에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육면적 닭 50㎡ 미만 농가는 2월 23일부터 등록한 것으로 보고 1년 이내(14.02.23일)에 가축사육업 등록요건을 갖추어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단, 15㎡ 미만인 닭을 사육하거나 하려는 가축사육 농가는 허가·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사육시설·소독시설·방역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을 준수하고, 도로에서 30m 이내 또는 축산관련시설(도계장, 사교공장 중계장 등)로부터 500m 이내에서는 신규허가를 제한하는 위치기준을 준수하

교육시간 및 주기

(단위: 시간)

구분		교육기한	의무교육	보수교육	
농가 및 법인	허가대상	허가면적* 해당 신규 농가	허가전	24	6 (2년마다)
		과거등록자 중 허가면적* 해당자	'14. 2. 22	12	
	사육경력 3년미만	8			
	사육경력 3년이상				
등록대상	신규농가	등록 전	6	6 (4년마다)	
	과거 등록 대상이 아닌 농가	'14. 2. 22			
	과거 등록자 중 허가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자	'15. 2. 22			
축산관련 종사자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주기적 차량	등록 전	6	4 (4년마다)
		그밖의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		
	가축거래상인	미확정			

*사육시설면적이 양계 2천 500㎡를 초과하는 경우(허가·등록이 제외되는 농가는 교육의무가 없음)

한국가금학회, 아태가금학회(APPC) 조직위원회 사무국 개소

조직위원회, 준비상황 점검 및 향후 추진 방안 논의

한국가금학회(회장 한재용)는 지난 3월 15일 서울대학교 220동 회의실에서 '2013년도 제 1차 아태가금학회(APPC) 조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제 10회 아태가금학회 총회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APPC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업무 분담이 이뤄졌다. 또한 수입 및 지출

예산안, 주요 스폰서십 계획, 국내외 홍보 및 뉴스레터, 홈페이지 개설 및 영문 리플렛 제작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한재용 회장은 "조직위원회 구성으로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가금학회 총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 10회 아태가금학회는 지난 2011년 3월 22일 대만에서 열린 제 9회 아태가금학회에 한국가금학회가 참석해 유치에 성공한 대회이다. 한국가금학회는 이날 조직위원회 사무실 현판식을 갖고 아태가금학회에 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HOT ISSUE

0 0 3

닭고기자조금 재정 확대로 다양한 활동 기대돼

닭고기자조금 미납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앞으로 닭고기자조금 사업의 활성화와 육계산업 안정화를 위해 양계농가에서는 철저한 거출금 납부가 요구될 전망이다.

지난 3월 6일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대의원 총회에서는 거출금액 변경안이 통과되면서 자조금 사업이 새롭게 변모해 갈 것으로 기대된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는 자조금의 효율적인 거출과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양계인들에게 닭고기자조금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등 거출을 적극 독려하고 나섰다. 절차에 따라 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의무거출금 납부안내서를 농가에 발송하



거나 공시하여, 납부대상, 납부금액, 납부 방법 등 의무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양계농가에 알리게 된다. 양계농가가 관리위원회에 의무거출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공지받고도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과태료 대상자는 도계하거나 도계용으로 판매하거나 축산물을 판매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않는 농가이다.

현재 닭고기자조금 거출률은 25%대를 유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의무자조금이

도입되면 80%대의 높은 거출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곧 닭고기자조금의 확대로 이어져, 앞으로 더욱 더 체계적으로 소비자에게 국내산 닭고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소비촉진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닭고기자조금으로 정부 정책의 변화 등으로 농가에 꼭 필요한 교육을 시의적절하게 실시하며 국내산 닭고기의 수출활성화 사업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고품질의 닭고기를 소비자에게 생산하며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진청, 봄철 황사피해 없도록 철저한 계사 관리 요청



HPAI 발병국 중국에서 유입되는 황사에 꼼꼼히 대비해야

기상청에 따르면, 올봄 황사는 작년(1회)에 비해서는 많고 평년 수준(9~12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3월에도 두 차례나 황사가 발생했고 봄철에 황사가 집중되는 만큼, 황사로 인한 각종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황사 발생 단계별

로 가축위생관리 요령을 발표하고 축산농가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황사 발원지인 중국에서 올해 조류인플루엔자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그 영향이 우리나라까지 미칠 수 있으므로 양계농가의 황사 대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황사 발생단계는 크게 황사발생 전 예방·대비단계, 황사 특보 발령 후 대응단계, 황사특보 해제 후 사후조치단계로 나뉘며, 각 발생단계에 따라 계사 내 방역요령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먼저, 황사 발생 전에는 노지에 방치하거나 쌓아둔 사료용 건조, 볏짚 등에 황

사가 묻지 않도록 덮어둘 비닐이나 천막, 소독약품, 황사 세척에 이용할 동력분무기 등을 챙겨놓고, 황사가 들어오지 않도록 계사 시설물의 문과 환기창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

둘째로, 황사특보가 발령된 후에는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 황사가 계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노지에 방치하거나 쌓아둔 사료용 건조, 볏짚을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덮어 황사가 묻지 않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황사특보가 해제된 후, 농가는 계사 주변과 안팎에 묻은 황사를 깨끗이 씻고 소독해야 하며 이때 급이기나 급수기 등도 꼼꼼히 소독해야 한다.

닭이 황사에 노출되었을 때에는 몸체에 묻은 황사를 털어낸 후 구연산 소독제 등으로 분무소독을 해준다.

황사발생 시 닭이 황사입자에 장기간 노출되면, 황사입자가 호흡기를 통해 닭의 체내로 들어가 폐에 흡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접하는 눈 점막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로 인해 닭이 기관지염과 같은 호흡기질환이나 결막염과 같은 안질환에 걸릴 수 있다. 그러므로 양계농가에서는 황사가 끝난 후 2주 정도까지는 질병의 발생유무를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양계농가들이 올봄 황사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고병원성 AI는 물론이고, 호흡기질환이나 안질환 등을 예방하고, 높은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국립축산과학원, 2013년 우수 종계장 인증 신청 접수

4월 3일~5일 접수마감...청정환경 및 우수종자 보급 기대

국립축산과학원은 종계장의 전문화와 가축전염병의 청정화를 통해 양계농가에 대한 우수 종계장의 선택지표를 제공하고자 '2013년 우수 종계장 인증' 신청을 받는다.

현재 육용종계의 경우, 우수 종계장으로 지정된 곳은 (주)마니커, 둔포농장, 계림농장 등 3개 종계장이며, 국립축산과학원은 신청농가의 사육마릿수, 위생·방역관리, 시설 및 환경, 인력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종계장을 인증한다.

신청자격은 육용종계의 사육 마릿수가 2만 수 이상으로, 종계 한 마리당 27주~64주까지의 생산주령 기간 동안 병아리 90수 또는 종란 110개 이상을 생산해야 한다.

또한 위생 및 방역 기준은 국립축산식품부 검역검사본부로부터 위생·방역관리 우수 종계장 인증(1, 2등급)을 받고,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부터 가금티푸스, 추백리, 조류인플루엔자(H5, H7)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된 업체이다.

시설 및 환경은 견고한 종계사육시설, 집란 관련 시설·장비, 종란 보관

실, 출입차량과 출입자 소독 시설·장비, 폐사가축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사료급여와 질병관리 등을 위한 사양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양계전문컨설팅 수료 또는 이외의 공인교육을 이수한 자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접수기간은 4월 3일부터 5일(금)까지이며, 우편접수 시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하다. 국립축산과학원은 접수받은 서류를 토대로 4월 8일부터 18일까지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를 하고, 인증위원회 심의 의

결을 거쳐 4월에 인증결과를 발표(통보)한다.

국립축산과학원 관계자는 "우수 종계장 인증사업은 근본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질병에 대비하여 청정한 축산 환경을 만들고, 좋은 종자를 생산해 우수 종자를 보급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결국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여 농가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농가의 소득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041-580-3355 (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가축개발평가과)〉

지부탐방 닭고기 자조금을 통한 육계산업 발전 도모

농가의 적극적인 거출 참여 독려

농가 적극적 참여해야 계열사도 동참할 것



충남 예산지부 신현철 지부장

3월 15일(금) 예산지부사무실에서 개최된 예산지부월례회의를 다녀왔다. 총 32명으로 구성된 예산육계지부는 신현철 지부장의 적극적인 추진력으로 회원간 결속력을 높여가고 있다. 6시부터 시작된 예산지부월례회의에서 신현철 지부장은 직접 육계 자조금 교육을 진행하며 농가의 자조금 거출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었다. 신현철 지부장은 “계열농가가 대부분이다 보니 농가가 직접 자조금을 내기보다는 계열사를 창구로 두고 자조금을 납부해 농가가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자조금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신현철 지부장은 홍보교육을 통해 농가에

서 직접 자조금사무국과 계열회사를 통해 자조금 납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계열사에서 자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여 줄 것을 독려해달라고 회원들에게 주문하였다. 농가에서 적극적으로 납부 의사를 보여야 계열사에서도 자조금에 동참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참석한 회원농가들은 농가 스스로 부담해야 할 자조금을 계산해 개인적으로 납부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농장 경영에 바쁜 농가를 대신해 계열사에서 자조금을 거출한 뒤 사육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계열사의 자조금 납부 동참을 이끌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하기도 하였다. 신현철 지부장은 올해부터 자조금 거출금액이 계열사 또는 도계장과 농가의 비율을 정해 납부기로 한 만큼 더욱 효율적인 거출이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며 교육을 마무리 지었다.

월례회를 마치고 주변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두루두루 회원들간의 안부소식을 전하며 편안한 만담자리가 마련되었다. 지난해 충남도청이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예산군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신현철 지부장은 오히려 예산지부의 고충이 깊어졌다고 한다. 지방조례에 따라 새로 이전한 충남도청으로부터 4km범위까지 축사제한구역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기존 축사가 이전해야 하고, 주거밀집지역이 늘면서 축산농가가 입지할 곳이 없어질 것을 우려하였다.

“지역이 발전되는 것은 좋지만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의 입장에서는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

다”고 털어놓았다.

또한 신 지부장은 지금까지 닭고기 자조금을 통한 지역홍보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점을 아쉬워했다. “올해는 회원들이 모여 지역주민들에게 국산 닭고기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마련하겠다”고 전하며 앞으로 예산지부 회원들과 닭고기 자조금에 적극 동참하고 지부 발전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사)대한양계협회 정책기획부 대리 이남희



예산육계지부 회원일동



육계질병가이드 / 감보로병 - 백신일령 결정방법

Q. 감보로 백신날짜를 결정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A. 백신일령을 결정하는 방법은 먼저 모체이행항체의 수준을 알아야 합니다. 모체이행항체는 종계에서 받은 항체의 수준입니다. 항체수준이 높을수록 방어력이 높습니다.

병아리가 부화 후 난황을 흡수하는 항체가 체내에서 소멸되므로, 항체는 체내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합니다.

모체이행항체는 높았으면만 아니라, 균일도도 무척 중요합니다. 균일도란 같은 정도로 모여 있는 정도인데요, A, B 계군에서 10마리를 검사했을 때 A는 1, 3, 4, 5, 6, 9, 2, 4, 2, 4의 항체가, B는 3, 4, 5, 3, 5, 5, 3, 3, 4, 5의 항체가 나왔다면, 평균값은 같지만 균일도는 B가 훨씬 높습니다. 균일도가 높아야 시간이 지날수록 동일한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백신을 해도 전체가 균일하게 백신이 됩니다. 육계는 보통 3~3.5일이면 항체값이 한 단계씩 떨어집니다. 다만 첫 3일 동안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만일 1일령에 검사한 감보로 항체가 4이고 반감기가 3일이라면, 3일 후에는 4, 6일령에는 3, 9일령에는 2, 12일

에는 1, 15일에는 0의 항체값이 됩니다.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은 위에 소개한 모체항체의 반감기와 1일령 항체역가를 가지고 계산을 해나가면 됩니다.

어떤 백신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날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간독플러스 백신이라면 1까지 떨어진 12일 이후에, 중간독 백신이라면 0에 가까운 15일에 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처럼 균일도가 낮은 계군에서는 평균은 1이라도 어떤 개체는 아직도 높고, 어떤 개체는 이미 0 이하의 상태이므로, 전체 계군이 골고루 면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2번 이상의 백신 프로그램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위와 같이 계산할 수 있지만 필드에 따라 상황이 다르므로 농장에서 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혈청검사를 통해 정확한 모체항체값을 파악하고, 담당수의사와 상의하여 최적의 백신 날짜를 결정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나 juyoon@bansuk.biz로 문의해 주세요.

<제공 : 반석 가금진료 연구소>

토종닭요리 전문점 '치킨포차' 2호점 오픈

철저한 생산 및 유통 거친 '한달 판매 인증점' 선배



'치킨포차'는 깨끗한 식용유, 위생적 청소 관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토종닭요리 전문점을 지향하고 있다.

토종닭만 전문으로 하는 토종닭 요리 전문점이 등장해 화제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치킨포차'는 작년 12월에 부산 경성대 인근에서 1호점을 개점했으며, 올해 3월에는 부산 미남(사직)에 2호점을 개점했다.

'치킨포차'는 토종닭통구이와 토종닭마늘치킨, 토종닭매콤바베큐, 토종닭갈비탕 등 맛있는 토종닭 치킨과 요리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로, 일반 닭고기 비해 사육기간이 길고 육질의 쫄깃한 맛이 특징으로, 우리의 종자임을

홍보하며 육계와의 차별화 전략을 내세워 손님들의 입소문을 타며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한국토종닭협회는 '치킨포차'가 철저한 생산 및 유통과정을 거친 토종닭을 판매하는 '한달 판매 인증점'이라고 밝히고 치킨포차를 통해 토종닭 소비가 촉진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치킨포차'는 '독도는 우리 땅, 닭은 토종닭'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판매 수익금 일부를 '독도를 사랑하는 모임'과 주변의 어려운 이웃 등과 함께하는 따뜻한 온정의 손길도 펼쳐나가 주변에 호응도 얻고 있다.

'치킨포차' 관계자는 "앞으로 부산 당감동에 3호점을 열 계획"이라고 밝히고, "현재는 부산 일대에서 치킨포차를 운영 중이지만 향후 전국적인 브랜드로 만들어 토종닭을 알리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포부를 전했다.



협회소식 양계관련단체 업무추진 활동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닭고기자조금 사업 진행상황

3월 22일(금)	외부회계감사
	- 삼영회계법인 실시 (회계감사)
3월 25일(월)	내부감사실시
	- 2012년 닭고기자조금사업에 대한 감사 - 최길영, 방진우
3월 마지막주	2013년 제3차 관리위원회 개최 예정
	- 장소 : 축산회관 지하 소회의실 예정
4월 첫째주	2013년 제2차 닭고기자조금 대의원회 개최 예정
	- 2012년 사업 결산보고, 2013년 사업예산(안) 변경 - 장소 : 대전 예정



육계 수급상황안정을 위한 육용(원)종계 감축 이루어져야

3월 20일 대전에서 3월 육계분과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분과위원회에서는 지역별로 축사시설 설치거리제한 외에도 축사설치 제한구역이 추가적으로 지자체 조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일면서 지회지부 현황을 파악하여 대처키로 하였다. 또한 본격적인 축산업 허가제 도입에 따라 양계농가에 보급되

어 있는 1톤 차량에 대해 축산차량 종사자로 구분되어 GPS의무부착 대상임을 모르고 있는 농가가 있어 피해가 없도록 홍보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다.

그 외에도 육용(원)종계 감축사업과 관련하여 점점 육계 사육규모가 커지면서 종계 사육마리수도 동반 증가하고 있는 점을 들어 육계산업 쿼터제를 도입하여 수급상황을 조절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3월 중계분과위원회의 개최

육용종계노계 연구용역 최종보고

지난 3월 13일(수) 천안 대명가든에서는 총 21명의 분과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3월 중계분과위원회가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원)종계 도태사업 추진경과 보고와 더불어 2차 도태사업은 개인농가인 경우 4~5만수 이상의 사육농가가 자격조건이라는 집행부의 설명과 중계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하였다.

2012년 닭고기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육용종계노계 시장가치 증대방안 연구용역의 최종보고가 이루어

졌으며,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제품이 상용화 될 수 있는 세부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대해 이연중 위원장은 “향후 여건이 된다면 육용종계의 안심을 활용한 제품 및 소시지 개발에 대한 부분도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기타사항으로 부화장의 난각 및 액란에 대해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건의해달라는 분과위원의 건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부산물과 폐기물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 후 재건의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산하 도지회 정기총회 개최

대한양계협회 산하 도지회에서는 2013년 을 맞아 정기총회를 열어 지난 해 사업을 결산하고 올해 사업을 정비하는 자리

를 가졌다. 지난 3월 19일(화) 전북도지회, 3월 21일(목) 대구경북도지회, 광주전남도지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사)대한양계협회



3월 육계분과위원회의 개최



(사)한국계육협회



전문지 기자간담회 개최



본회 올해 주요사업계획에 대해 설명

본회는 지난 3월 18일 본회 회의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협회 사업방향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정병학 회장은 올해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 ▲ 육용(원)종계 자율감축 사업 진행 ▲ 닭고기 가격결정 구조 개선 ▲ 농가-계열주체간 상생의 장 마련 ▲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사업 지속적 추진 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육용(원)종계 감축과 관련 정병학 회장은 “지난해 업계의 장기적인 불황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됐고, 정부에 양계협회와 함께 종계 감축을 건의했지만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다”며 “하지만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정부에 거듭 요청한 끝에 종계 감축 사업이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계육산업 역사상 이렇게 많은 물량의 종계 감축이 이뤄진 경우는 처음”이라며 “감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회복 경기까지 육계 시세는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육용 종계 감축사업의 경우 3월 13일 현재 본회 물량 48만 6천 100수 중 35만 5천 897수가 진행돼 73.2%의 진행률을 나타냈으며, 육용 원종계는 원종 4사의 하반기 수입물량 자율조정으로 올해 16만 2

천수만 수입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가 겉으로만 이뤄지고 실제로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정병학 회장은 “지금 대부분의 계열사들이 경영난이 심해 동참하는 사업인 만큼 지켜지는 것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업체 들끼리 상호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합의 내용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내 계육의 날을 제정하고 친목 행사를 열어 농가와 계열주체간의 상호 이해관계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병학 회장은 “농가와 계열주체가 같이 하나의 산업으로 인식하고, 우리 국민에게 좋은 닭고기를 공급할 수 있는 상생의 산업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닭고기 소비촉진 홍보사업의 경우 현재 닭고기의 우수성 및 영양성 관련 TV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영할 계획이며 수입육 시장에 대비해서 고급화 전략으로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병학 회장은 “수입육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심는 방식의 홍보는 자칫 잘못하면 국내산의 소비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낼 수도 있어 국내산의 우수성을 동시에 알리는 방식으로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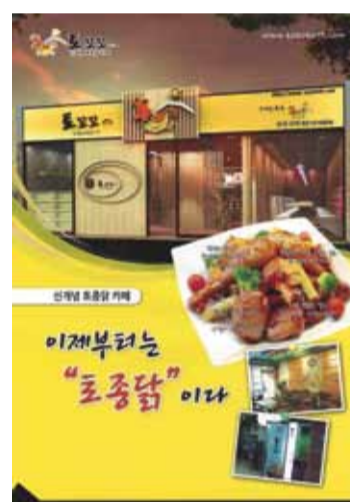
닭 인정기관 준비에 만전을 기할것을 주문하고 한담 인증제, 종계 DB 사업, 종계 일반검정 등 토종닭과 관련된 사업을 토종닭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에 대해 종계·부화분과위원회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결의하고 동의했다.

한편, 이날 토종닭 산업발전과 자조금 거출에 앞장선 공로로 지난 3월 6일 유정연 위원(금곡농장)과 김진동 위원(창동부화장)에게 수여된 농협중앙회장상과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상에 대한 전달식을 가졌다.

토종닭 전문 브랜드 '토꼬꼬'

프랜차이즈박람회서 토종닭 홍보

커피와 맥주, 토종닭 치킨을 한 자리에 즐길 수 있는 신개념 토종닭 카페 '토꼬꼬'가 토종닭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토꼬꼬'는 지난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SETEC에서 개최된 '제29회 프랜차이즈박람회'에 참가해서 참가객에게 토종닭의 우수성과 쫄깃한 맛을 알렸다. 특히 커피와 치킨의 궁합이 안 맞을 것 이란 인식을 보기 좋게 깨고 '오븐에 구운 토종닭 바베큐'와 함께 새로운 카페 문화를 내세워 지나가는 참가객의 발길을 붙잡았다.



또한 점포 내의 전 제품에 적은 중량의 토종닭만을 사용함으로 큰 닭만 선호 하던 토종닭 산업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충분히 기존의 치킨과 가격 경쟁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사)한국토종닭협회도 최근 회원사를 방문해 수컷보다 성장속도가 느린 암컷을 감별하여 분리 사육하고 빠른 일령에 적은 중량의 토종닭을 출하해 가공하는 것이 농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설명하며 이에 대한 모델로 토종닭 치킨 전문 프랜차이즈 '토꼬꼬'를 소개했다.

'토꼬꼬'는 지난 2012년 2월 부산 구포 본점을 오픈으로 현재 13호점까지 개점했으며, 대구 14호점 개점을 눈앞에 두고 있다. 토꼬꼬 관계자는 “1년밖에 안된 토종닭 브랜드 토꼬꼬가 10여 개의 점포를 낼 수 있었던 것은 기존 치킨과의 종에 대한 차별성에 역점을 두고 홍보한 것이 중요했다”고 말하며 “최근 식(食)문화가 웰빙에서 힐링으로 넘어가면서 기름에 튀기는 음식보다 오븐에 구운 닭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이 땅에서 나고 자란 우리 종자에 대한 가치와 우수성을 재인식하는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토꼬꼬가 함께 성장하고 있다”고 했다.

'토꼬꼬'는 지난 '12년 10월 「한담판매 인증」을 받았으며, 토종닭 소비 홍보 부문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13년 대의원 정기총회'에서 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한 바 있다.

도축 통계에 토종닭 구분 위해 관련 기관 협조 요청

최근 협회는 토종닭 기초 통계 작성을 위해 도축실적 구분을 위해 관련 기관에 협조 요청을 했다.

현재까지는 토종닭 도계시 육계와 구분 없이 도축장 사정에 따라 육계 또는 겸용종으로 집계되어 왔다. 하지만 토종닭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유산이자 종자로 가금 중 유일하게 순계(PL)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원종계(GPS)를 수입하는 육계와는 사양, 관리, 형태 등이 상이하게 달라 이에 대한 도축 구분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법에도 없는 품종을 구분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다.

하지만 지난 2월 23일 축산법 일부개

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토종가축에 대한 정의가 마련되었고 정부는 이에 대한 보존·육성 대책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생김에 따라 협회는 재차 도축현황에 육계와 토종닭 구분을 요청했다. 이에 관계 기관에서는 도축 구분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김연수 회장은 “육계와 토종닭의 도축 구분은 토종닭 산업이 FTA 등 개방화 시대에 대응하여 수요공급 조절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의 밑거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하며, “축산법 내 토종닭에 대한 정의가 규정됨에 따라 앞으로 토종닭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한국토종닭협회

KOREAN NATIVE CHICKEN ASSOCIATION
(사)한국토종닭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의 개최



은 토종닭 수급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후 이어진 안전토의에서 종계·부화분과위원들은 작년부터 어려웠던 축산 상황에 대해 공감하며 타 축종의 생산성 향상에 따른 과잉 공급과 소비 위축으로 토종닭의 좁아진 입지를 타개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또한 (사)한국토종닭협회에서 올해 종계 분양 예정을 조사한 결과 작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토종닭 산업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생산성 향상과 환우계를 포함하면 예년 수준과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을 했다.

분과위원회는 토종가축의 축산법 등재에 따라 (사)한국토종닭협회는 토종

지난 3월 13일 대전 유성 소재 만나에서 종계·부화 분과위원회의(위원장 정학동)가 개최되었다.

(사)한국토종닭협회는 지난 2월 23일 시행된 축산법 일부 개정안에 따른 축산업 허가제 시행과 무허가 축사 개선대책 등 정부 시책과 병아리 분양내역에 대해 보고했다. 특히 2월 말 토종병아리 입추가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해 분과위원들

Today's
맛 있는
닭고기 요리

닭날개 튀김과 두반장소스

닭날개에는 콜라겐 성분과 비타민A가 풍부해서, 고운 피부를 유지하고 잔주름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산뜻한 봄날, 고와진 피부를 맘껏 자랑하며 외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재료 닭날개 400g, 치킨파우더 1/2작은술, 청주 2큰술, 녹말 4큰술, 계란 1개, 다진 땅콩 3큰술, 소금, 후추, 식용유
두반장소스 두반장 1큰술, 케첩 5큰술, 설탕 1큰술, 물엿 2큰술, 간장 1큰술, 다진 마늘 2큰술, 다진 생강 1큰술, 다진 파 1큰술, 식초 1큰술, 고추기름 2큰술

Cooking

1. 닭날개는 깨끗이 씻어 끝부분을 자르고 칼집을 넣어 물기를 닦아 치킨파우더, 후추, 소금을 뿌려 30분 간 재워둔다.
 2. ①의 간이 베인 닭날개에 계란, 청주, 녹말을 넣고 버무려 30분 간 재운 다음 170℃로 끓는 식용유에 두 번 튀긴다.
 3. 팬에 고추기름을 두르고 뜨거워지면 생강, 마늘, 파를 넣어 볶아 향이 우러나면 나머지 양념재료를 넣고 맛이 어우러지게 볶아 소스를 만든다.
 4. ③의 소스에 닭날개 튀김을 넣고 버무려 그릇에 담고 땅콩을 뿌린다.
- 〈제공 : 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 안승춘 회장〉



퀴즈 날말맞추기

1			9		10
		4			
2	3				
				11	
	5		7		
6			8		

◇ 가로풀이 ✨ ✨

1. 부화를 목적으로 암탉과 수탉을 교배시켜 생산한 계란
2. 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몸짓이나 손짓
4. 크게 이김
5. 프랑스 파리에서 간행되는 일간신문
6. 중국 한나라 말기에 뛰어난 의술로 이름을 떨친 인물
8. 당밀 또는 사탕수수를 발효하여 증류한 술
9. 주로 계란생산을 위한 닭을 사육하기 위하여 만든 구조물
11. 자세하게 조사하여 합격 여부나 당락 따위를 결정함

◇ 세로풀이

1. 무게 · 길이 · 부피 등을 표준으로 하여 세율을 정하는 조세
3. 고대 그리스의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한 도시 국가
4. 부상한 자리
7. 양악에서 쓰는 타악기
9. 토마토 등의 주스에 향료 · 감미료 · 식초 등을 섞어 만든 소스
10.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그 회사를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회사

식		중	환	자
우	회	전		절
중		당	기	우
	공	포		리
직	감		감	칠
	대	다	수	닭



... 44호 정답은 45호에 게재합니다

양 계 비법전수

육계사 환기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요?



환기 시, 외부 공기가 닭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닭은 소나 돼지에 비해 단위체중당 산소 소비량과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2배 이상 많다. 또한 습해진 깔짚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등 유해가스로 인해 계사 내에 적절한 환기를 통해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생산성이 나빠지고 질병 발생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환기는 계사 내의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악취 및 먼지 제거로 닭은 물론 작업자에게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단, 병아리는 성계보다 공기품질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14일령까지는 최소 환기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때 병아리에게 섯바람이나 순환팬의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개방계사의 경우 측면 커튼의 개폐를 통해 자연환기를 시키게 되는데, 최적의 계사 내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내·외부의 온도와 습도, 풍속, 풍향을 고려하여 커튼을 조절해 주어야 하므로 세심한 관찰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추가

로 순환팬을 설치하여 여름에 체감 온도를 낮춰주거나 겨울에 유입되는 찬 공기를 내부의 따뜻한 공기와 섞어 줄 수 있다. 무창(환경조절)계사는 배기팬을 설치하여 강제 환기를 시키는데, 계사규모 및 구조와 사육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의 배기팬을 설치하고 입기구의 면적을 맞춰주어 적절한 음압이 유지되어 계사 전체에 고르게 일정 속도 이상의 풍속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출처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닭기르기 100문100답'〉

AI 차단방역 철저

시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차단방역과 주기적 소독 필수

농장주, 관리인 등 농장근무자

- ⇒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출입자를 철저히 통제
- ⇒ 계사출입시 발판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생활화
- ⇒ 철새도래지 및 서식지, 가축시장, 부화장, 집하장, 도계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장 등의 방문 자제
- ⇒ AI발생국 여행 자제(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등)
-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철저한 소독 및 교육 실시
- ⇒ 살충 및 구서(쥐잡기) 실시

방문자 등 외부인

- ⇒ 농장출입구에 '방역상 출입금지' 안내문 부착
- ⇒ 발판소독조, 분무소독시설 설치, 운영
- ⇒ 외국인의 가금류농가 출입제한
- ⇒ 동물약품 · 사료 · 채혈요원 등 방문자의 사전 약속 및 청결한 의복 · 신발 착용
- ⇒ 계사 출입 시 깨끗한 방역복 · 장화를 착용하고 출입문에서 장화 침지 소독

출입차량

⇒ 모든 차량은 농장 출입구에서 세척 및 소독 실시

AI의심축 신고전화(1588-4060)